

복막투석 환자에서 *Methylobacterium mesophilicum*에 의한 복막염 1례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이현숙 · 이은경 · 조종태 · 윤성철

A Case of Continuous Ambulatory Peritoneal Dialysis Peritonitis Due to *Methylobacterium mesophilicum*

Lee Hyun Suk, Lee Eun Kyung, Cho Jong Tae, Yoon Sung Chul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Dankoo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eonan, Korea

복막염은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중인 말기신부전 환자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합병증으로 원인균은 대부분 그람양성균으로 70% 정도로 보고되며 그람음성균이 20%, 진균이 3%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본 증례는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에 의한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고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을 해오던 환자에서 발생한 그람음성간균인 *Methylobacterium mesophilicum*에 의한 복막염 1례이다.

50세 여자환자가 복통과 혼탁한 투석액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상기 환자는 1999년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으로 진단받고 2008년 4월부터 말기신부전 진단하에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 시행하신 분으로, 내원 2달전 복막염으로 2주간 imipenem 복강내 주입후 호전되다가 치료후 7일후 복막염 재발하여 다시 imipenem 복강내 주입 치료 2주 시행후 호전된 과거력 있는 분이다. 2회 복막액 배양검사에서 반복적으로 *Methylobacterium mesophilicum*이 동정되었으며 항생제 감수성 결과 Imipenem에 감수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 되었다. 입원 당시 복막염 소견 보여 이전에 동정된 균에 의한 복막염이 두번째 재발한 것으로 보고 다시 복강내 Imipenem 주입 총 4주 지속후 재발 없이 외래 경과 관찰중이다.

*Methylobacterium mesophilicum*은 토양, 물, 병원기구등 다양한 환경에서 분리되나 병원체로서 인체감염은 드물며 대개의 감염은 면역저하환자에서 기회감염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 환자의 복막염 원인균으로는 드문 균이지만 균동정 결과에 따라 충분한 기간 동안 항생제 치료후 더 이상의 재발 없이 복막투석이 가능하였다.

Key Words :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 복막염

Methylobacterium mesophilicum, CAPD, Peritonitis